

紙上에서 誌上으로



수입 유기농과자값 일반제품 10배까지

비슷한 제품도 유통사 따라 천차만별, 미국산 농산물 가격차이 20% 남짓

- 홍보부 -

“유기농 시장이야말로 ‘베블런 이론’이 가장 잘 적용되는 시장이다. 무조건 비싸게 팔면 소비자들은 진짜겠거니 산다.”(모 백화점 야채 바이어)

매일경제 취재팀이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친환경 농산물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반 농산물보다 최소 2배에서 많게는 8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공식품은 10배가 훨씬 넘는 높은 가격도 있었다. 비슷한 친환경 상품이라도 유통업체에 따라 가격도 제각각이었다.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유기농 깻잎(30장)은 1700원에 팔리고 있다. 이마트에서는 1180원, 한겨레 초록마을에서는 1060원, 올가에서는 1300원에 판매되고 있었지만 농협하나로클럽에서 판매되는 일반 깻잎은 같은 규격이 370원이었다. 가격차가 최고 5배가 넘는다.

유기농 오이(개)도 현대백화점 2100원, 롯데백화점 1050원, 이마트 840원, 초록마을 750원, 올가 800원이었지만 농협하나로클럽 일반 오이

는 300원으로 유기농 오이가 일반 오이에 비해 최고 7배 비쌌다. 농협하나로클럽에서 일반 배(개)가 2300원인데 반해 유기농 배는 현대백화점 5500원, 갤러리아 3200원, 롯데백화점 4800원이었다.

수입 친환경식품은 일반상품과 가격 차이가 더 커진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친환경 가공식품은 대부분 수입산이다. 국내 브랜드로 거래되는 상품으로는 일부 조미료 10여 품목에 불과하다. 수입산 유기농 디카페인 인스턴트 커피(100g)가 1만9000원인데 반해 네슬레 초이스 디카프(100g)는 4분의 1 값인 5020원, 수입 유기농 옥수수콘(330g · 8500원)은 청정원 스위트콘(340g · 1150원)의 8배에 가깝다. 조미료도 마찬가지다. 유기농 토마토 케첩(680g · 1만 2000원)과 설탕(1350g · 2만1000원) 등은 모두 국산 일반 제품의 4~5배에 달한다. 심지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웨하스의 경우 유기농 바닐라 맛웨하스(100g · 4800원)는 해태 바닐라맛 웨하

스(64g·450원)의 10배를 훌쩍 넘는다. 이처럼 친환경 제품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대량생산과 화학비료 처리를 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기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관행농법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화학비료 대신 가격이 2~3배 비싼 유기질비료(성분기준)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위적 조절이 가능한 수요와 공급에도 원인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5% 미만”이라며 “가장 상위 단계의 유기농산물 비중은 친환경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가격 프리미엄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나친 가격 차이는 결국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유통업체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 책정도 한몫한다. 유기농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가격 책정이 적정 프리미엄을 상당 부분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며 “유기농산물이 프리미엄급 농산물로 시장에 포지셔닝되어 판매가가 과다 책정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격이 높아야 좀더 믿을 만한 제품으로 보인다는 논리인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현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이 이미 과잉상태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익성 때문에 너도나도 친환경 농업에 뛰어들면서 재배 농가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생산량도 크게 늘고 있다.

장상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정책팀장은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소비 증가한계가 있다”며 “조만간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가격도 조절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왜 이렇게 비싼가

유기농 비싸야 더 잘 팔려 유통사 고가 정책도 한 몫



친환경 농산물은 왜 이렇게 비쌀까. 전문가들은 생산비 차이를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단계 자체는 일반 농산물에 비해 특별히 복잡하다거나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생산단계에서 일반 농산물과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친환경제품 전문매장 올가(Orga) 관계자는 “생산원가 차이가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농법을 사용하면 노동력이 관행(일반)농법에 비해 많이 들어가고 유기질비료 등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 가격 역시 매우 높다.

연관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생산농가에서 일일이 발품을 팔고 인력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하는 일도 많다. 미국에서는 연관산업이 다양하게 발



달해 있어 유기농 농가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광물질 비료, 유기농 전용 해충방지제 등을 사다 쓸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유기농법은 특성상 완전 정착까지 3~5년이 걸리고 그 동안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쌀의 경우 300평당 생산단가는 일반 쌀이 53만원, 저농약 쌀이 75만원, 무농약 쌀이 84만원, 유기농 쌀이 92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유기농 쌀이 생산단가에서부터 일반 쌀보다 1.74배나 높고 저농약 쌀은 1.4배, 무농약 쌀은 1.58배 각각 비싸다. 생산단가는 높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떨어지는 점도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다.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친환경농법 시행 농가가 최소 3~5년간은 제대로 농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돈벌이가 된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친환경농업에 뛰어들었지만 높은 생산단가로 수지가 맞지 않게 되면 농민들이 저절로 편법에 눈을 돌리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 친환경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보조금)을 ha당 80만원에서 11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된 공급과 유통을 위해 대형 유통단지와의 같은 전문 유통채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농산물의 3.5% 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물량이 7% 정도가 되면 가격도 20~30% 정도 저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통과정의 마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간 마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비싸야 잘 팔린다”는 인식 때문에 일부러 고가 정책을 취하는 업체도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은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 5~6% 정도 높은 마진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한살림 조완형 박사는 “현재 시중의 친환경농산물 가격은 소비자들의 기대수치보다 50%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나 일부 전문점들이 과연 적절한 이윤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국내 인증제 없어 중국산도 'OK'



친환경제품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은 매우 취약한 편. 따라서 친환경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식품·유통업체들은 주로 외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들여와 가공하거나 완제품 형태 가공 식품을 수입해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수입 친환경농산물은 2003년 904 t에 불과했으나 2005년 8500

t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대비 수입 친환경 농산물 인증량 비중을 보면 2003년 4%, 2005년 22%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산 인증 유기농산물 물량 증가는 둔화하고 있으나 수입 유기농산물과 수입 유기가공식품 물량은 매년 2~3배씩 늘어난 추세다.

수입 친환경농산물 대부분은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며 친환경 두부, 콩나물, 두유 등 원료로 사용된다. 완제품 형태로 수입돼 국내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가공식품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대략 1000여 개 품목에 이른다. 영양식품, 과자류, 음료류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입 친환경제품은 국내 인증을 받지 않는다. 아예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 농관원이 매년 공개하는 국제인증기구나 해당국 인증기구 인증서만 첨부하면 통관에 무리가 없다. 해당국 인증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국내에서 거를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셈이다.

수입 친환경 가공식품 역시 원산지 인증만 있으면 오케이다. 물론 국내 인증이 아직 가공식품

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다 국내에 유기농 가공시설을 제대로 갖춘 기업이 없는 탓도 있지만 소비자 처지에서 수입업체들이 ‘국제 ○○○인증기관 인증을 얻었다’고 광고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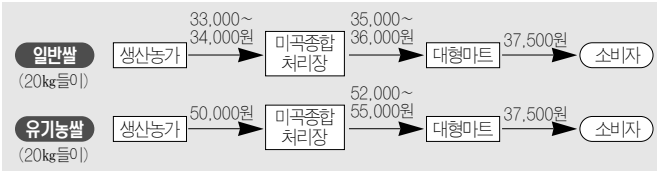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관계자는 “특히 중국산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 인증을 줄 때 생산과정이 유기농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를 검증하기보다는 농약이 검출되는지 여부만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은 우리나라의 저농약·무농약 단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매일경제, 2006. 7. 5).

친환경농산물값 거품?



유기농쌀과 일반쌀 가격결정 구조

주부 박성희 씨(38)는 최근 백화점 유기농 매장에 갔다가 가격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기농 상추 100g 가격이 무려 1200원이었던 것. 박씨는 며칠 전 집 근처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같은 규격의 일반 상추를 405원에 구입한 적이 있다. 박씨는 “유기농 신선식품과 일반식품이 3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국 사회를 휩쓴 이른바 ‘웰빙 열풍’은 유기농 제품 시장에서 ‘가격거품’을 만들었다. 농림부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일반 농산물보다 1.3~3.5배 높다. 최근 매일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과 할인점, 유기농 전문매장에서 판매하는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일반 상품에 비해 최소 2배, 최대 8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과 관련 시장이 가장 활성화돼 있는 미국의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가격 차이는 10~20% 선. 뉴질랜드에서는 유기농 키

위와 일반 키위 간 가격차가 20% 내외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유기농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오히

려 싼 경우도 있다. 유통업체 사이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전문 벤더업체를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대형 백화점과 전문점들의 가격이 한층 더 비싸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단체인 한살림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와 일반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일반 농산물 가격보다 평균 1.8배 비싼 데 비해 한살림 판매 상품은 1.3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구조도 문제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단가가 일반 농산물에 비해 높은 것도 한 요인이다. 국내 친환경 농작물 생산비용은 일반 농산물보다 1.5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중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시판품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